

2020 상반기 활동 보고서

The First Half of 2020 Report



BAN KI-MOON FOUNDATION FOR A BETTER FUTURE

목차

I . 재단의 5大 PROJECT 추진

1. SDGs 5년 평가와 향후 10년 과제
2. Global Public Health Governance in Post COVID-19
3. 청소년 환경교육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4. ADB(Asian Development Bank)와의 공동 사업
5. 「반기문 평화안보포럼」 운영

II . 이사장 활동

1. 해외활동
2. COVID-19 관련 활동
3. SDGs와 기후변화
4. 평화와 안보
5. 여성과 청소년
6. 유관기관을 통한 재단의 목적사업 구현 활동

III . 대외 기부 활동

1. 현금기부
2. 물품기부

IV . 재단방문 국내·외 주요인사

1. 해외인사
2. 국내인사

1. SDGs 5년 평가와 향후 10년 과제

▣ 사업 배경 및 목적

• 사업 배경

- SDGs의 지속적인 추진과 국제적인 이행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구체적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활동

• 사업의 목적

- SDGs 시행 5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향후 10년 이행에 관한 구체적인 권고사항과 메시지를 작성하여 국제사회에 전달
- SDGs를 이행하는 각 국가와 주체들에게 미래지향적이고 구체적인 SDGs 발전방향을 제시

▣ 사업 계획

• 실무 참여진

- 반기문재단 정내권 이사를 비롯한 연구진 10명

• 사업수행 일정

주요 사업 내용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자문회의						
최종보고회						

▣ 활동 내용 및 실적

• 활동 내용

- SDGs 이행 동향 파악 및 정량적 분석
- SDGs 추진을 위한 향후 파트너십 구축
- 주요 메시지 및 권고사항 수립

• 5차례 내부회의 및 1차례 중간보고회를 수행

2. Global Public Health Governance in Post COVID-19

■ 사업 배경 및 목적

- COVID-19 사태의 진정 이후 국제보건체계의 글로벌 공조방안 모색 및 구체적 대안을 효과적으로 제시하고자 함
- COVID-19 사태는 SDG 17개 모든 목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특히 SDG3의 지속적인 추진과 국제적인 이행 및 연계방안을 모색하여 SDGs 달성 측면에서 융합적인 접근법의 제시가 필요함

■ 사업 계획

- 실무 참여진
 - 연세대 정태용 교수를 비롯한 연구진 11명
- 사업수행 일정

주요 사업 내용	5월	6월	7월	8월
착수보고회				
자문회의				
최종보고회				

■ 사업 내용

- 국내·외 보건의료체계 분석 및 평가
- SDG3와 연계한 Global Public Health 파트너십 구축
- Global Public Health System 및 Governance의 새로운 접근방안을 제시하여 새로운 국제협력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구체적 권고사항 도출

3. 청소년 환경교육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 사업 배경 및 목적

- **사업 배경**
 - 현재 학교 현장 교육은 학생 수준에 맞는 교육 콘텐츠 부족, 비교과 과목에 대한 부족한 지식 및 경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낮은 인식 등의 한계점으로 인하여 기후환경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 **사업의 목적**
 - 기후환경 관련 Global on-offline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이를 ICT와 접목하여 학생들에게 기후환경의 개념, 지식 및 과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구체적인 실천 활동, 즉 체험 활동과 현장 참여교육을 중시할 수 있는 수업 모듈을 디자인

■ 사업 계획

- **실무 참여진**
 - 이주호 前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비롯한 연구진 9명
- **사업수행 일정**

주요 사업 내용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전문가 자문회의						
최종보고회						

■ 사업 내용

- 환경 및 기후변화 목표와 관련된 교육 자료 수집·분석
- ICT와 접목하였을 때 큰 효과성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의 SDG13 목표 관련 교육 콘텐츠 개발
- SDG 13 외에도 가치관, 태도, 기술을 습득하고 문제해결능력을 키울 수 있는 체험·참여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개발

4. ADB(Asian Development Bank)와의 공동 사업

▣ 사업 배경 및 목적

- SDGs의 틀을 이용한 총체적인 접근을 통해 현재 COVID-19 대응 프로그램의 한계를 보완하는 ‘BKM initiative: 코로나 대응 글로벌 플랫폼’
- 전문가 집단과 기술적 수준에 초점을 두면서 다자기구·공공기관의 기능을 보완하고 현재의 COVID-19 대응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구체적인 플랫폼 구축.

▣ 사업 계획

- 실무 참여진
 - 고려대 최재욱 교수를 비롯한 연구진 10명
- 두 가지 플랫폼 구축:
 - 단기 신속대응: Platform for Rapid Response to Health Emergencies (PRRHE)
 - 장기 제도적 접근: Platform for Sustainable Health Management Solutions (PSHMS)
- 사업수행 일정

주요 사업 내용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BKM initiative 발표	■							
지식 전달 (한국 경험 공유)		■						
온/오프라인 회의 2회			■	■	■			
ADB 정기회의 전 고위급 논의를 위한 지식 전달					■			
최종 지식전달 두 플랫폼 이행								■

▣ 사업 실적

- 4월 22일 온라인 회의(재단: 김숙 상임이사, ADB: Bambang Susantono 부총재)
- 6월 16일 온라인 회의(재단: 반기문 이사장, ADB: Bambang Susantono 부총재)를 통해 ADB와의 세가지 협력 분야 합의:
 - COVID-19 공동 대응 및 연구
 - 역내 지식 공유
 - 대응 역량 증진

5. 「반기문 평화안보포럼」 운영

▣ 포럼 운영 목적

- 반기문재단의 목적사업 중 하나인 평화·안보 분야의 신규 프로젝트
 - 한반도, 동북아 지역은 물론, 국제 외교안보 정세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
- 국내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재단 업무 역량 강화

▣ 포럼 위원 구성

- 통일, 외교·안보 및 국방 분야 고위인사와 민간 전문가 등 20명 내외
 - 전직 외교부, 통일부 및 국방부 고위관료와 민간 연구소(think tank) 인사

▣ 활동계획 및 실적

- 금년 1.28 포럼 출범 및 1차 세미나 개최(코리아나 호텔)
 - 1차 세미나 주제: ‘2020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 전망’ (발제: 남성욱 고려대 교수)
 - 주제 발표에 이어, 참석 위원들의 토론으로 진행 (세미나 내용은 언론 비공개이고, 참석 위원은 정치적 중립 유지)
- 당초 격월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COVID-19 사태로 인해 후속 일정 연기 중
 - 차기 세미나 주제는 전술핵, 남북 군사합의 및 국방개혁 등 국방부문



▲반기문 평화 안보 포럼

1. 해외활동

■ 두바이, 제네바 방문 (1/7~1/12)

- GEMS 국제학교 모의 UN 사무국 학생들과의 만남 (1/8, 두바이)
-세계시민의식과 리더십을 가지도록 학생들에게 장려
- GEMS국제학교 모의 유엔(GWAMUN) 기조연설 (1/9, 두바이)
-모의 유엔을 통해 지속가능개발목표 및 2030 의제에 대해 배울 수 있기를 소망
- 「Khaleej Times」와의 인터뷰 (1/9, 두바이)
-다자주의, 기후변화, 세계평화, 난민문제에 대한 견해 밝힘
- IOC 윤리위원회 주재 및 개혁안 보고 (1/10, 제네바)

■ 파리, 런던, 워싱턴 방문 (1/19~1/26)

- SciencesPo(파리정치대학)에서 Youth and Leaders Summit 기조연설 (1/20, 파리)
-기후의 영향을 받는 사회에서 번성하는 방법
- Cambridge University 연설 (1/21, 런던)
-SDGs의 달성을 위한 여성의 역량 강화의 중요성 강조
- 2020 Doomsday Clock Statement 참석 (1/23, 워싱턴)
-분침을 자정 100초 전으로 당김
-핵무기와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성을 경고하며 탄소 없는 경제,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해 다자주의의 중요성 강조
- Georgetown University 학생들과 Doomsday Clock에 대한 질의응답 진행 (1/23, 워싱턴)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세계적인 비전의 중요성 강조
- Brookings Institute 행사 기조 연설 (1/24, 워싱턴)
-기후 변화의 위험성과 다자주의적 해결책의 필요성 강조

▣ 방콕 방문 (1/30~2/1)

- 유엔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강연 (1/31, 방콕)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기후변화와 대기 오염 이해하기
- Prince Mahidol Award 회의 기조연설 (1/31, 방콕)
-보편적 의료 보장의 중요성 강조

▣ 뮌헨 방문 (2/13~2/16)

- 뮌헨안보회의의 ‘기후와 안보 패널 토의’ 참석 (2/13, 뮌헨)
-기후 변화와 핵 문제 해결의 시급성 강조
- 뮌헨공과대학교 TUM Speakers Series 연설 (2/14, 뮌헨)
-세계적인 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해결책: 다자주의의 중요성

▣ 런던, 파리 방문 (2/24~2/29)

- Brand Finance의 Global Soft Power Summit 2020 기조연설 (2/25, 런던)
-국경을 초월하여 화합의 교량을 건설하는 소프트파워
- Global Center on Adaptation(GCA) Board Meeting 주재 (2/27, 파리)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공동의 인식 촉구
- 프랑스 개발청장과의 대담 (2/29, 파리)
-기후 변화에 맞서기 위해서는 파트너십을 동원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점 강조
- 노르웨이 개발장관과의 면담 (2/29, 파리)



▲Brookings Institute 행사 기조 연설

2. COVID-19 관련 활동

- ‘2020 TV CHOSUN 국제 화상 컨퍼런스’ 기조연설 (3/26)
-COVID-19로 깨닫는 양질의 교육의 중요성, 양질의 교육의 핵심 요소로 ‘혁신’과 ‘파트너십’ 강조
- 세계지도자회의 (Club de Madrid) 공동 논평 (4/3)
-COVID-19 대응을 위해 G20국가간 협력의 중요성 강조
- 영국 「RT News Network」의 ‘Going Underground’와의 인터뷰 (4/4)
-COVID-19를 극복하기 위해 협력의 중요성 강조
- 각국 전·현직 정상급 지도자 등 165명과 함께 공개 서한 발표 (4/6)
-G20 지도자들에게 COVID-19 대응을 위한 아프리카 긴급자금 지원 촉구
- 세계 스카우트 연맹 영상메시지 (4/7)
-COVID-19극복을 위한 청년들의 역할 강조
- 「CNN」 Opinion (4/9)
-COVID-19 위기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기후 변화 해결 방안
- 「TIME」 Opinion (4/16)
-COVID-19위기 대응에 인권, 연대, 정의에 대한 존중이 없다면 불평등과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
- 세계지도자회의 (Club de Madrid) 영상메시지 (4/24)
-COVID-19와 같은 팬데믹과 기후변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자주의적 연대가 중요함을 강조
- 「Huffington Post」 Opinion (5/2)
-COVID-19와 같은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 자연 보호의 중요성 강조
-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공동성명 발표 (5/25)
-의료기관 및 의료인을 향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각국 정부의 단호한 조치 촉구
- 「Newsweek」 Opinion (6/1) *원문 별첨
-코로나19 사태가 주는 교훈: 지금은 국제협력에 집중할 때
- Heinz Fischer 오스트리아 전 대통령과 「Die Presse」에 Opinion 발표 (6/3)
-COVID-19 대응을 위한 협력, 연대, 책임감, 규율, 동정심의 중요성 강조
- 「Financial Times」 Opinion (6/17) *원문 별첨
-친환경 과제 해결을 코로나19 복구 계획의 핵심에 두는 것이 중요

3. SDGs와 기후변화

- 제 504회 합포문화강좌 강연 (1/16, 마산 3.15 아트센터 국제회의장)
-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과 기후변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독려
- UN ESCAP에 Decade of Action 영상 메시지 (2/14)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이 SDGs 도입 가속화에 힘써주기를 당부
- SDG Academy: Jeffery Sacks 와의 대담 (2/20)
- 글로벌 목표 설정과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에 대한 공동의 인식
- UN Academy Impact: UN 75주년 기념 온라인 회담 (6/5)
- 기후변화 대응에서 대학의 역할 강조
- 유엔지속가능발전해법 네트워크 청년위원회(SDSN Youth) Global Schools Program 지지 메시지 (6/10)
-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

4. 평화와 안보

- 「Independent」 기고문 (1/23)
- 세계 재앙에 가까워 졌음을 나타내는 Doomsday Clock은 세계에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 평창 평화 포럼 기조연설 (2/9,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
- SDGs달성을 위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고 한반도를 비롯한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역설
- 현충일 추념사 (6/6)
- 22개국의 유엔 참전용사들 추모, 일관성 있는 보훈정책 실시 강조
- 「TIME」과의 인터뷰 (Time 100 Talks with Ban Ki-moon) (6/17) ***기사 별첨**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미북 정상회담으로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얻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
- KBS1 다큐멘터리 ‘유네스코 가입 70년, 빛나는 동행’ 출연 (6/19)
- 유네스코와의 협력 관계를 통한 한국의 비약적 발전을 되돌아 봄, 자신도 유네스코 교과서로 공부 했다는 사실을 강조
- 「South China Morning Post」 Opinion (6/27) ***원문 별첨**
- 핵확산은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만큼이나 다자적 대응이 필요
- 한중고위지도자 아카데미 강연 (6/29)
- 한·중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미 동맹과 관련해서는 중국 측의 이해를 구함

5. 여성과 청소년

- 어린이 조선일보 독자와의 만남 (2/7)
- 초등학생들에게 다른 민족이나 국가를 포용하는 세계 시민 정신을 갖출 것을 강조
- UN ESCAP에 UN75주년 맞이 영상메시지 (2/14)
- 기후 위기 대처에서의 청소년 역할 강조
- 어린이날 축하영상 (5/5)
-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에서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다고 약속함
- Oxford Union 팟캐스트 인터뷰 (6/17)
- UN 사무총장 재임 시절의 업적과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한 이야기 나눔
- 여성의 권한부여와 참여 없이는 세계적인 의제와 위기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유엔 여성기구(UN Women)를 설립했다고 설명



▲어린이 조선일보 독자와의 만남

6. 유관기관을 통한 재단의 목적사업 구현 활동

▣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으로서의 활동

- **한국행정연구원 정기간행물 ‘행정포커스’ 특별대담 (2/21)**
-우리나라는 SDGs를 상위 개념으로 하여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을 추진전략으로 통합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동북아 공동대응의 필요성 강조
- **중앙일보 회견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공동) (4/22)**
-COVID-19는 초연결사회가 가져온 생태계 교란의 결과, COVID-19 극복을 위해서는 글로벌 연대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
- **한국일보 인터뷰 (4/29)**
-기후변화 재앙이 COVID-19 위기 초래, 한국은 지구촌 기후 위기를 막을 ‘포스트 코로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
- **그린뉴딜 정책관련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의 협의 (5/21)**
- 그린뉴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2050년 이전 탈석탄 선언을 하는 등의 야심찬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
- **국회 정책 간담회 강연 (6/29)**
- 기후약당에서 기후선도국으로 변화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기후환경교육의 중요성 역설

▣ 보아오 포럼 이사장으로서의 활동

- **제2회 국제보건포럼 화상회의 기조연설 (6/2)**
-COVID-19 전개 상황과 재발 방지 계획 논의



▲ 국회 정책 간담회 강연

■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총회 및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활동

• 제7차 Green Round Table 축하 (6/24, 조선포텔)

-코로나 피해 복구를 친환경적으로 추진하여 ‘하던 대로의 일상(Business as Usual)’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 강조



▲ 제7차 Green Round Table 축하

■ The Elders 부의장으로서의 활동

• 공동 성명서 발표 (1/29)

-미국의 새로운 ‘중동평화구상’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분쟁을 해소할 수 없다고 경고

• 공동 성명서 발표 (3/18)

-COVID-19 극복을 위한 세계적인 연대와 해결책 권고

• 공동 성명서 발표 (5/11)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해소에 국제 사회의 참여 촉구

• 화상회의 (5/18, 5/19) 및 공동 성명서 발표(5/21)

-COVID-19 사태 대응을 다자주의, 연대, 인권에 기반을 두고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의 가난한 국가들의 건강과 경제적 필요를 우선시할 것을 촉구

■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 명예회장으로서의 활동

• 2020 정기총회 강연 (5/28, 포시즌스호텔)

-COVID-19 대응을 위해 기업은 재정적 지원, 직접 현물 기부, 공동 어드보카시 활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

• 창립 20주년 기념 Leaders Summit개회사 (6/16)

-인종차별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

1. 현금기부

- (사) 함께하는 다문화 네트워크
- 코로나 19 대응 순직공무원 故피재호 위로금
- 세이브더칠드런
- UNICEF
- UNHCR

2. 물품기부

기부내역	기부처	비고
마스크 I (100만 매, USD 200,000 상당)	대한 적십자사	마원이 기부한 마스크를 대한 적십자사에 지정기부
마스크 II (10만 매, USD 20,000 상당)	광명시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	중국 반씨 문화연구원으로부터 기부 받은 마스크를 국내 지자체 및 병원 등에 지원
	창신2동 주민센터	
	난곡동 주민센터	
	시립 영등포 쪽방 상담소	
	음성군청	
	서울대 병원	
	세브란스병원	
	경북대병원	
	영남대 병원	
	아주대 병원	
	경찰청(교통순찰대)	
	국가기후 환경회의	
	한중인재개발	

기부내역	기부처	비고
방호복(110,000벌) 방호안경(30,000개) 방호장갑(250,000쌍) 알코올(120,000병) (USD 250,000 상당)	흑룡강성 방역물자팀	중국 리그그룹 기부물품을 현지에서 하얼빈적십자사를 통해 기부
방호복 (20,000벌, USD 480,000 상당)	부산광역시	중국 칭다오시로부터 기부 받은 방호복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해당 지자체, 병원에 지정기부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서울대 병원	
	세브란스병원	
	경북대병원	
	영남대 병원	
	충북대병원	
	전남대병원	
공기 스프레이 및 공기정화 소독기 (2,127병, USD 211,500 상당)	중국 우한 레이션산병원	중국 북경 래은창과 과기유한공사로부터 기증 받은 물품을 중국 병원, 기관 등에 기부 (통관절차문제로 중국 내에서 직접 기부)
	중국 우한 타이강 통지병원	
	산시성 적십자사	
	저장성 진화시 중심병원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 중앙위원회	
	산둥성 위생건강 위원회	
	중국 산둥성 인민정부	
84 소독제 (30,000병, USD 22,400 상당)	중국 청소년 발전기금회	중국 치정장양오 유한공사의 기부물품을 중국 내 기관에 기부 (통관절차문제로 중국 내에서 직접 기부)
	중국교육발전기금회	
	UN 아동 기금회	
	장쑤성 청소년 발전기금회	
	후베이성 생태환경청	
	꾸안푸 박물관	
	전국전매대학교	
	중국 칭다오 해관	
	중국 상하이 해관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	



▲ 반기문 재단 COVID-19 대응 방역 마스크 국내 기부



▲ 반기문 재단 COVID-19 대응 방역 물품 중국 현지 기부

재단방문 국내·외 주요인사

1. 해외인사

날짜	해외 인사
2/10	도미타 코지 주한일본대사 내방
2/20	Wylbur Chisiya Simuusa 주한잠비아 대사 내방
3/19	Sripriya Ranganathan 주한인도대사 내방
5/11	Jerome Kim 국제백신연구소 사무총장 내방
5/13	Alfredo Bascou 주한아르헨티나대사 내방
5/28	James Lynch UNHCR 한국대표 내방
6/9	Al-Saadi Zakariya Hamed Hilal 주한오만신임 대사 내방
6/12	Jacqueline Wambui M. Waiguchu 주한케냐 대리대사 내방
6/16	Mohammed Al-Hayki 주한카타르대사 내방
6/22	몐타즈 자흐라 발로치 주한파키스탄 신임대사 내방
6/22	Liv Torres 노벨평화센터 박물관장 내방

2. 국내인사

날짜	국내 인사
1/15	최갑태 L&S Investment 회장 내방
2/3	강태선 블랙야크 회장 내방
2/3	공영운 현대자동차 전략기획담당 사장 내방
2/7	GGGI 김효은 사무처장·William Kim 내부감사국장, 유연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내방
2/10	김종섭 삼익악기 회장 내방
2/19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내방
3/18	외교부 유연철 기후변화대사·정기용 기후환경과학외교국 국장 내방
4/20	남택성 경기초등학교 교장 내방
4/22	외교부 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장욱진 국제기구국 협력관 내방
4/28	정병하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내방
5/11	조완규 전 서울대학교 총장 내방
5/22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정윤정 국제교류담당관 내방
6/5	임상범 제네바 차석대사 부임인사 내방
6/8	황영기 한미협회 회장 내방
6/19	한겨레신문 김현대 대표이사 사장·유강문 경제사회연구원 원장 내방
6/23	권기환 주아일랜드 대사 내방
6/26	이장근 주방글라데시대사 내방

「Newsweek」 Opinion (6/1) 원문

Ban Ki-Moon: The Lesson from COVID-19 is that We Need More, Not Less, Global Cooperation

Global leadership has been sorely absent in the face of the gravest threat to human life in more than a century. Instead of unity, there is political acrimony. Instead of heeding the advice of experts, they are sidelined, undermined. Instead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re is finger-pointing. COVID-19 has become a blame game of international politics.

I need not dwell on the consequences of this colossal, collective failure of global leadership. The pandemic is still spreading, its death toll now in the hundreds of thousands. The global economy is at a standstill. Hundreds of millions of people are unemployed, and as hunger grows, so will civil strife. According to the UN, a quarter of a billion people may starve this year. What progress we have made on reducing poverty and malnutrition and our other social development goals could be wiped out within months.

In our hyper-connected world, where misinformation spreads faster than the virus, this blame game will get us nowhere. Tweets are no substitute for good policies and political action. It's time to put an end to political bickering and focus on the job at hand: containing the pandemic. To further politicize the current health emergency is not only immoral and irresponsible; it is almost criminal.

Trust is the key to building an effective global response to COVID-19. We know that measures to contain the virus have been most effective in countries where citizens have a high degree of trust in their governments. And we know that global co-operation has succeeded in stopping deadly pathogens in the past. Smallpox was eradicated with a global immunization campaign led by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At a critical moment of an Ebola outbreak in Africa in 2014, the UN Security Council pronounced it a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dispatched its first ever mission to combat a disease.

If we have been unable to apply the lessons learnt from previous epidemics, it is because trust between governments, and in our multilateral institutions, is at its lowest ebb. Never have we needed it more. Only by working together will we be able to devise rapid responses to health emergencies such as COVID-19. Shutting down borders and cities, hoarding medical supplies, every man for himself: that is not the answer.

We need new ways of working to rebuild trust in collective action for the common good. A global platform, where best practices and success stories and the most updated data and information can be shared, would be a good place to start. The platform would encourage all stakeholders, including health professionals, researchers, the pharmaceutical industry and policy-makers, to engage in a professional and non-partisan way. It would be a first step towards improving global coordination on rapid responses to health emergencies, while building consensus on how to prevent or deal with future ones.

We need international co-operation, too, on how to reopen our economies and our borders safely. We need commonly agreed international rules to allow travel to resume without again becoming a vector for the deadly virus. And to achieve this we need to tone down the politics and maximize openness and co-operation based on the best available information and data.

Secondly, when the time comes to rebuild, we must rebuild better, with a different set of priorities. As Pope Francis reminds us, nature never forgives. How can we presume to remain healthy in a world that is sick? We need to invest in public health, in social safety nets such as a minimum living wage, in education, sanitation and clean water, in green energy and climate action. In short, we must revive our economies by investing in people and the planet. We can no longer pursue short-term economic growth at the expense of everything else. The Green Deal proposed by the European Union is timely, but it is not a quick fix. In Europe and elsewhere, we need a shift towards long-term green growth.

Hand-in-hand with this, we need to address the deep inequalities in our global economic systems. Inequality is the root cause of every modern social disease, from poverty to terrorism. Inequality stokes fear and sows mistrust. It is the poorest, less-privileged members of our societies who are dying in greater numbers from COVID-19. They are bearing the brunt of hunger and unemployment brought by the virus. Emergency relief for the loss of income during the pandemic is necessary, but we need to move beyond short-term compensation towards long-term investment in social inclusivity.

We know that COVID-19 will not be the last pandemic, but it is the one by which our leaders and political systems, including our multilateral institutions, will be judged based on fairness, transparency, openness and inclusiveness. We must not fail our citizens. We must rebuild trust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mount an effective response and be better prepared for the next emergency, when it comes.

「Financial Times」 Opinion (6/17) 원문

It is critical to design our Covid-19 recovery for green challenges

Heading the UN gave me a new perspective on the world. In a short time, I saw glaciers melting in Antarctica, devastating floods in Thailand and Pakistan, the 2011 tsunami in Japan and Hurricane Sandy in America. In September 2011, I met a young boy in the South Pacific island of Kiribati who could not sleep because he was worried that the rising sea would destroy his home.

I learnt that the biggest challenges humanity faces are interlinked. I saw that surviving and emerging from a crisis depends upon our ability to work together, beyond borders and national interests. And I understood that our relationship with nature will ultimately decide our fate. If we fail to keep the equilibrium, the most vulnerable will suffer first and most.

These lessons have become front of mind again as Covid-19 spread quickly around a world that is more connected than ever, yet increasingly divided and inward-looking. The pandemic has shaken our global society to its foundations and tested our ability to collaborate.

Now, world leaders are committing unprecedented funds to recovery packages. Their choices will shape our economies and societies for decades, and determine whether we breathe clean air, create a sustainable low-carbon future and possibly even survive as a species.

The current pandemic has been brutal, but the challenges ahead will be worse unless we design our recovery to address them. Air pollution has made the impact of coronavirus significantly worse and lies behind 7m deaths every year because of its links to a host of other conditions. It has many of the same root causes as climate change, which threatens our existence.

Equally, Covid-19 has shown what is possible when humanity is faced with a tangible and fast-moving threat. Air quality improved nearly instantly as a result of government lockdowns. The rapid responses and widespread compliance show we can change our behavior if the health imperative and political mandate exist.

We know people want change. A new YouGov poll commissioned by the Clean Air Fund shows at least two-thirds of citizens in diverse locations around the world—Bulgaria, India, Great Britain, Nigeria and Poland—support more laws and enforcement to tackle air pollution. As economies are restarted, a return to toxic air would simply replace one health crisis with another.

Governments will never have a better chance to address these issues. They can structure bailouts to wean the sectors they save off fossil fuels. They can prioritize green jobs, renewable energy and clean technology. These measures would pay for themselves many times over.

There are also specific steps they can take on clean air. Leaders of some of the world's biggest cities, including London and Milan, are already repurposing city centers to use cleaner energy and technology. They are encouraging us to get out of our cars, to make more journeys on foot, by bike or—in the long term—via public transport, by investing in infrastructure that makes this possible. These ideas need to be expanded and repeated elsewhere, with backing from national governments.

Yet, we could miss this clear opportunity. Governments in countries such as the US and China have lifted environmental restrictions during the crisis; continued relaxation or simply returning to business as usual would be disastrous.

In my country of the Republic of Korea, we are introducing a Green New Deal that seeks a new way of life after the pandemic. We want to tackle climate change and air pollution alongside other elements of the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uch as inequality and poverty, and to look beyond our borders. That is why we are increasing co-operation with Japan and China to address regional air pollution.

But these promising first steps will not be enough. In July, G20 finance ministers will meet to review their collective response to the pandemic. On September 7, the UN is organizing the first International Day of Clean Air for Blue Skies. And attention is turning to the COP26 summit in 2021, which feels like our last chance. Governments must seize these opportunities to put clean air and climate justice at the heart of recovery plans, in line with the 2015 Paris climate agreement.

This will not be easy, but it can and must be done. The pandemic has taken a heavy toll, but it could be just be a taste of things to come. We owe it to ourselves and future generations to build back better.

「Time」과의 인터뷰 (6/17) 기사 원문

President Trump's North Korea Summits Gave Kim Jong Un 'de Facto Nuclear State Status,' Ban Ki-moon Says

Former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 Ban Ki-moon has said that Kim Jong Un played to President Donald Trump's "ego and penchant for pageantry" during their three one-on-one high-profile summits in 2018 and 2019, and that the North Korean leader "seems to have succeeded in acquiring de facto nuclear state status."

Ban's comments come amid escalating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as South Korean officials said Tuesday that North Korea had blown up a joint liaison office, located near the border and designed to facilitate better communic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an interview during Wednesday's TIME100 Talks, Ban said that he was "very worried" about ongoing missile tests in North Korea, and that the United States has changed its position on North Korea's acceptable behavior. "President Trump has been saying that it's okay that [North Korea] are testing some small range missiles, as it cannot reach the American continent. It's not only the security and safety of the American continent. It's the safety, security and threat to the whole of humanity," Ban said.

Trump and Kim Jong Un have met three times, once in Singapore in June 2018, in Hanoi, Vietnam in February 2019, and at the demilitarized zon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n June 2019. Trump's steps onto North Korean territory mark a first for a sitting U.S. president, although commentators have noted that there's been little progress on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since. "President Trump has been able to make a good contribution, but at this time, unfortunately, by just granting a one-on-one summit three times, [it] perhaps played to Trump's ego and penchant for pageantry, and Kim Jong Un seems to have succeeded in acquiring de facto nuclear state status," said Ban.

Ban spoke to TIME East Asia Correspondent Charlie Campbell in a wide-ranging conversation, covering topics from South Korea's response to the coronavirus pandemic to the rise of populism and nationalism. The event also featured AI pioneer Kai-Fu Lee, Bollywood actor Ayushmann Khurrana, tennis star Naomi Osaka and a performance by K-pop group Monsta X.

"Now, embarrassingly, we are seeing some absence of American leadership since the Administration of Donald Trump began," Ban said, adding that the U.S. was backtracking from world helping to address global problems "at a time when American leadership is most needed."

Referring to "opportunistic leaders" in the U.S., Brazil and Southeast Asia in particular, Ban condemned populism, saying that certain figures were exploiting anger at societal inequalities to frame globalism (and the U.N.) as the enemy of national values. "Attacks on the U.N. are nothing new. [These leaders] are using the anger of the people on the ground," Ban said, adding that levels of xenophobia, racism, anti-Semitism and sexism have dangerously increased globally in tandem with the rise in populism.

Ban urged powerful nations to work together to overcome global challenges, noting the U.S. withdrawal from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in 2018, UNESCO in 2019, and the Paris Agreement on climate change, which Ban led efforts on during his tenure at the United Nations from 2007 to 2016. "Since the election of President Trump in 2016, I'm afraid this 'America First' policy has in fact isolated the United States on the global stage," Ban said.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the glue that binds everybody together. Nationalism and protectionism are simply not viable alternatives to co-operation and partnership."

Ban, who also served as South Korea's Foreign Minister earlier in his career, spoke of how his country's experiences of the SARS and MERS epidemics helped it prepare for the current coronavirus pandemic. "Mask wearing has been ingrained in the lives of Korean people, and the government's very aggressive response related to the three 'T's — 'testing, tracing and treatment' — has been particularly effective in keeping cases, hospitalizations and deaths relatively low," Ban said.

The first confirmed coronavirus case in South Korea was announced on Jan. 20; to date, the country has had 11,902 confirmed cases and just 276 deaths. A day later on Jan. 21, the first case was confirmed in the U.S.; to date, the country has had more than 1.9 million confirmed cases and more than 112,000 deaths.

Echoing his broader emphasis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Ban acknowledged that while "no one size fits all" when it came to individual country responses to the crisis, South Korea was willing to share its experiences. "Korea ready to work with the U.N.,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and I believe that there are many lessons to be learnt that could be replicated from the lessons of the Korean people."

『South China Morning Post』 Opinion (6/27) 원문

Nuclear proliferation needs a multilateral response just as much as the coronavirus pandemic

Covid-19 has shone a light on the acute vulnerabilities of our interconnected world. No country can tackle the pandemic alone, regardless of its size, strength or technological sophistication. The only way to overcome the threat is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transparency.

The same principles apply to an equally grave threat to the future of humanity, albeit one that rarely dominates the news. 2020 marks the 75th anniversary of the dropping of atomic bombs on Hiroshima and Nagasaki.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 has been effective for the past 50 years, with 190 countries taking part.

Yet a nuclear conflict remains a clear and present danger today. According to the latest report from the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the global nuclear weapons stockpile still stands at 13,400 warheads even three decades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Tensions are alarmingly high between the two nuclear states of China and India after the deadly clashes between troops in Ladakh's Galwan valley. Furthermore, India and its other nuclear-armed neighbour Pakistan came frighteningly close to war in 2019 over the disputed territory of Kashmir.

When it comes to the Korean peninsula, US President Donald Trump's attempts to build a personal rapport with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have yielded nothing in terms of concrete progress toward North Korea's complete denuclearisation. On the contrary, North Korea continues to strengthen its nuclear capabilities and has never given up its ambition to acquire de facto nuclear status.

All of this bodes ill when Covid-19 consumes world leaders' attention and has put on hold the habitual rhythms and practices of international diplomacy.

The nuclear threat was already growing in significance before the pandemic after deliberate assaults on the multilateral system launched by nationalist, isolationist and authoritarian leaders. The US decision in 2019 to withdraw from the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 was a myopic and retrograde move that harks back to the Cold War and a dangerous arms race on European soil and beyond.

In recent weeks, we have seen further alarming signals from Washington that weaken the global architecture of arms control and non-proliferation, including the announcement it intends to withdraw from the Open Skies Treaty and even reports that it is considering a resumption of nuclear testing after a 28-year moratorium.

This year should have also been the occasion for the Non-Proliferation Treaty Review Conference, which had to be postponed because of Covid-19.

All parties to the NPT should not waste the time afforded by this postponement and take concrete steps to meet their obligations on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Those bearing the heaviest responsibility are the five permanent members of the UN Security Council, which have consistently failed to live up to their obligations on disarmament under Article 6 of the NPT.

States should exert whatever pressure they can to convince the US administration to agree to extend the New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 (New START) for five years. Its expiry would mean no binding agreement on arms control between the two nuclear superpowers – the United States and Russia – and thus create a serious risk to global peace and security.

The US has suggested it wants to broaden New START to include China. While it is important for China to be engaged in the global disarmament discussion, it is disingenuous to make New START's extension dependent on Beijing, given that its stockpiles are one-twentieth the size of those of the US and Russia.

The US should instead accept the offer of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and immediately agree to an extension. China's inclusion can be separately negotiated subsequently.

An effective, rules-based multilateral system is the world's insurance policy against existential threats, from pandemics to climate change to nuclear weapons.

Pious words about the victims of Hiroshima and Nagasaki will ring hollow if today's nuclear powers do not take concrete steps to reduce their arsenals and invest in a robust global arms control architecture.

“반기문재단에 보내주신 후원금은 모두
재단의 발전과 목적 사업에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BAN KI-MOON FOUNDATION FOR A BETTER FUTURE

재단법인 보다나은미래를위한 반기문재단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 33 내자빌딩 5층 (우:03176)
Tel: 02-739-9094 | Fax: 02-739-9095
Email: bkmfoundation@bf4bf.or.kr
Web: <http://bf4bf.or.kr>